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씀 드렸습니다. 성막을 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분의 백성이 되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필요한 요소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 35장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35:5, 21, 22, 29). 이렇듯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젊고 건강하여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타의에 의해 억지로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의 일을 하고 그 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를 쓰십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여인"을 성막을 세우는 일에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이 보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 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 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고 자신들은 그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35:10). 25절과 26절에서는 이 "지혜로운"을 "슬기로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치가 빠르다거나 꾀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있어 그 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을 책임자로 브살렐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31:3, 35:31).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고(행7:55)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행11:24, 13:9).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십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 중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브살렐이 이전에 어떠한 재주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부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은사란 내가 원래 잘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도 하시고 보석이나 나무를 다루는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조각하는 일, 세공 하는 일, 수 놓는 일 등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일을 총괄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35:1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 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전달할 때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35:2-3).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고 하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 아무 쓸모도 없고 하나님께도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요구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31:11, 36:1). 모세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시간의 많고 적음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후9:7 말씀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도 가져오라 명하시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출25:2) 말씀하십니다. 또한 35:29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망라하여 모든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

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으며 또 어떤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염소 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